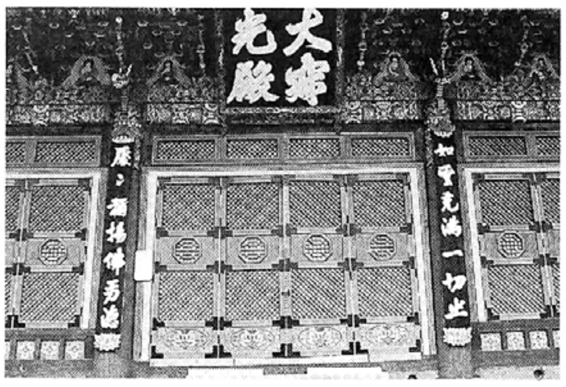
◇화성 용주사의 '만수리실' 편액은 가로 145㎝ 세로 55㎝의 특이한 형태로 사찰창건과 함께 1790년에 조성됐다. 만수는 지혜의 상징 문수보살을 뜻한다.



◇해인사 대적광전의 주련(일부). 〈화엄경〉의 내용을 대원군이 썼다.

◇고려 공민왕이 쓴 부석사 '무량수전' 편액은 문화재로 지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국사찰 편액과 주련' 책으로 묶는다

진흥원 편찬위 구성…의미등 총정리…99년 발간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 봉선사등 1천여 사찰의 편액과 주련이 자료로 총정리된다.

대한불교 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전국 사찰의 편액및 주련을 항구적으로 보존하고 사찰을 찾는 불자들이 유래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한국사찰의 편액과 주련'을 99년 발간키로 하고 내달부터 각 지역별로 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작업에 들어간다.

'한국사찰의 편액과 주련'에는 각 사찰의 편액및 주련의 내용소개는 물론 사찰의 당우와 문화재안내, 찾아가는 길 등도 자세히 소개된다. 특히 편액과 주련의 경우 조성연대, 부착위치, 수량, 크기, 글쓴이, 원문, 원문풀이, 출전, 문화재적 가치 등까지 조사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기초자료조사에 들어간 진흥원은 5월에는 경기도 여주군, 화성군지역 용주사등 20여 사찰을 표본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1천여 사찰의 주련및 현황 조사를 위한 전체기획안을 마련했다. 진흥원은 동국대 성보문화재연구원, 박물관과 협조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2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여될 이번 사업은 편액과 주련의 종류를 형태별로 정리함은 물론 내용도 상세히 파악하여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내용이 많은지 등 조사후 통계를 낸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조선후기 이전만 해도 낙관없는 편액과 주련이 대부분인만큼 글쓴 이를 파악하고 복각이 많은 추사 김정희 글씨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원본도 찾아 간추리게 된다.

홍윤식(동국대교수) 문화재전문위원은 "편액은 건물의 부속물이지만 단건으로 문화재 지정이 가능하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어서 문화재 지정이 안되어 있다"며 "이번 조사자료로 인해 수법이나 형태에 따라 편액·주련등도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배명인(진흥원이사)씨를 '한국사찰의 편액과 주련' 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편찬위원에 월운(동국역경원장) 범하(통도사성보박물관장)스님 김응현(동방연서회장) 홍윤식(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 권창륜(서예가) 여원구(서예가)씨를 임명했다.

김원우 기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예능동.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개관

삼성동에…29일부터 작품전

전통문화예술의 창조적인 마당이 될 서울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11월29일 강남구 삼성동 112번지에 신축 개관됐다.

총 1백55억원을 들여 착공 4년8개월만에 문을 연 전수회관은 부지 7백52평, 연건평 3천4백47평 규모(예능동 지하4층 지상3층/공예동 지하4층, 지상5층)로 기·예능 보유자와 전승자들의 전수교육, 전통문화예술의 보급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예능분야에 예능단체사무실·상설공연장·예능연습실 등이, 공예분야에 작업공방·상설전시실 및 기획전시실·공예품판매장·공예교육실기실 등이 갖춰져 있으며 판소리보존회, 봉산탈춤 등 8개 종목의 단체와 조각장 김철주씨 등 13명의 기능보유자가 입주한다.

한편, 전수회관 개관과 함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과 '개관기념공연'이 내년 1월10일까지 펼쳐진다.

문체부 내년예산 '문화찬밥'

총예산중 1% 넘었지만 체육부문 집중

내년도 문화체육부 예산규모가 처음으로 정부 총예산 대비 1% 수준을 넘었지만 문화예술 부문은 총예산의 0.68%에 그쳤다.

정기국회에서 확정된 98년 문체부 예산 8천73억원은 총예산 75조4천6백36억원의 1.07%로 사상 처음 1%선을 돌파한 것. 그러나 증액내용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장 건설지원비 5백억원 등 주로 체육부분에 집중됐다.

부문별 예산을 보더라도 △체육진흥 2천4백38억원(전년대비 61.0% 증가) △문화재관리 1천4백78억원(18.9%) △문예진흥 1천4백2억원(22.6%) △문화예술기관 1천9백30억원(7.1%) 등 문화예술 분야 증감비율이 훨씬 낮다.

부문별 편성내용에서 두드러진 것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금 지원비가 월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됐고, 전국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과 지방국립박물관 건립 확대가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반면 문체부가 2000년 '문화의 시대'를 대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문화비전2000사업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98년 문화재관리국의 대전청사 이전에 따른 문화재연구소 청사신축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5개년 문화권 유적정비사업은 국비 지방비 민자 등 2백억원의 예산을 마련, △강화문화권의 선원사지 △안동·영주문화권의 소수서원 등 유교관련 유적 △다도해 해양문화권의 이순신장군 관련 유적을 우선 복원정비된다. 이밖에 △경주문화권의 남산 석조문화재 △ 백제문화권의 미륵사지 △중원문화권의 거돈사지 등도 국비 1천1백39억원, 지방비 6백3억원, 민자 67억원 등 총 1천8백10억원을 투입해 점차 복원정비할 방침이다. 〈석〉

진각종 교성곡 '회당' 발표

창종 50주년기념 17일 대구문화예술회관

진각종은 창종 50주년을 기념해 대구 금강합창단 부산 유가합창단 대전 심인합창단 울산 연화합창단 등 4개 합창단 2백여명이 연합해 17일 오후 6시 대구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창작 교성곡 '회당'공연을 갖는다.

'회당'은 진각종 창종주인 회당 손규상대종사의 일대기를 그린 음악 대서사시로 시인 장지현정사(진각종 LA 불광심인당 주교)가 작시를, 찬불가 '우리도 부처님같이'로 유명한 이달철씨가 작곡을 맡았다.

교성곡 '회당'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제1부 탄생 제2부 깨달음 제3부 교화의 빛 제4부 열반으로, 회당대종사가 깨달음을 얻고 진각종을 창종해 민중을 교화하고 열반에 드는 전생애가 드라마틱하게 교성곡으로 표현된다. 장한업교수(영남대)의 지휘로 경북심포니오케스트라가 협연하며 곡중 솔로는 테너 이병삼교수(대구예술대) 바리톤 조정래 교수(대구예술대)가 맡는다.

불심시심 〈109〉

길이 위태롭다

何處尋眞客 (하처심진객)	어느 곳에서 온 진여 찾던 나그네
穿林訪北廻 (천림방북회)	숲 뚫고 북쪽에서 돌아왔네
留笻明鏡舍 (유공명경사)	지팡이는 명경의 집에 멈춰두고
探景白花臺 (탐경백화대)	경치를 흰 꽃 무대에서 찾으려나
山色因風轉 (산색인풍전)	산 색깔은 바람 따라 갈리고
泉聲得雨開 (천성득우개)	샘 소리는 비를 만나 열렸다
歸程須好去 (귀정수호거)	돌아가는 길 조심조심 살펴 가소
危路滑如苔 (위로활여태)	위태로운 길 이끼처럼 매끄러워.

대원대사의 시이다. 이 시의 구성에서도 시작과 끝이 재미있게 물려 있다. 첫 련에서 돌아옴과 끝 련에서의 돌아갈 길을 자연스럽게 맞물려 놓았기 때문이다. 찾아온 손님은 진여를 찾는 손님이다. 이때의 참(眞)이 진여의 세계일 수도 있고, 그대로의 진실의 참일 수도 있으니 나그네의 참다움을 엿보게 한다.

승련에서 명경의 집에서 지팡이를 멈추고 백화의 누대를 찾는다는 대구의 상징성이 이 시의 구성을 한껏 돋보이게 한다. 명경이 진여의 마음바탕을 상징한다면 백화는 외계의 아름다움인 일상의 세계라 할 수도 있으니, 이 나그네는 진여 탐구의 수도에서, 잠시 자연경관의 심미적 속계로 내려온 것이라 함이' 어떨까. 멈추다(留)와 찾다(探)의 행위적 정지와 재출발도 시의 고도로서의 동정의 대칭이 재미 있거니와, 저쪽과 이쪽을, 명경사로서의 선계와 백화대의 속계로 맞물림에 있어서도 작자의 구성적 재치를 엿보게 한다.

산빛이야 변함없는 산빛이지만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달리 보일 수도 있다. 그러기에 산빛이 구른다(轉) 하였으니, 정적인 산색을 동적인 생동감으로 변화시킨 묘수라 하겠다. 샘물소리가 열린다(泉聲開)함도 재미있는 표현이다. 비로 인해서 물소리가 커졌음을 소리가 열렸다 하니, 단순하게 들리는 소리를 동작화한 느낌이어서 예사로운 수사성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시작법상 각운을 고려하여 열 개(開)자를 쓸 수밖에 없다는 단순한 해석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리 쉽지 않은 수사이다.

오신 손님은 지나는 과객이다. 잠시 멈추었다 가는 손님이다. 오는 걸음을 반가이 맞이했다면 가는 걸음은 아쉬워함이 정이요, 떠나는 길에는 부탁이 따르게 마련이다. 길조심으로 당부할 수밖에, 길이 미끄럽다고.

이종찬 〈동국대 교수〉

"불법감동 노래로 전해요"

부산서 첫 찬불독창회 여는 정서영씨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찬불독창회가 열린다. 합창제는 드물지 않지만 찬불독창회가 시도되는 것은 처음으로 3일 오후 7시 부산문화회관 중강당에서 독창회를 갖는 불자 소프라노 정서영씨(30) 가 그 주인공. 동아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내원정사와 금강암 합창단을 지도하고 있는 정씨는 "그동안 어려울 때마다 든든한 의지가 되어주던 부처님법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이번 독창회를 마련했다"고 말한다.

이번 독창회에서 정씨는 김진씨의 피아노반주로 '일천강에 비치는 달' '청산은 나를 보고' '구름걷힌 달' '비구니' '지계의 노래' 등 13곡의 찬불가를 부르고 금강암 합창단과 부산불교교육대학 합창단이 찬조 출연한다.

정서영씨는 "노래를 통한 포교가 그 어떤 포교보다도 쉽게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편"이라며 이번 공연후 독일유학을 떠나 몇년 열심히 공부한후 돌아와 불교계 음악지도자로서 또 노래포교사로서 회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희〉

최우수상에 '불감'

어린이문화재미술대회

◇김혜영어린이의 그림 '불상'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은 7일까지 지하1층 로비에서 '제23회 어린이 문화재미술실기대회' 입상작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초등학생 1천51명이 참가해 재능을 겨룬 가운데 최우수상을 차지한 '불감'(서교초등 4학년 김수빈)을 비롯 우수상 '불상' 등 총 1백6점의 입상작들이 선보인다.

붓다들이 벌이는 영혼의 축제

최신간

월계수 꽃의 냄새를 맡았는가

오쇼 라즈니쉬의 이뀨선사 강의 · 이경옥 옮김

아름답고 슬픈 감성의 소유자,
비범한 통찰력을 지닌 구도자 이뀨선사!
오쇼 라즈니쉬의 눈과 마음으로 그의 시를 듣는다.

눈물 · 웃음 · 침묵의 스승, 오쇼 라즈니쉬(Osho Rajneesh)! 그는 일본의 별난 선사 이뀨(一休)의 시 가운데 주옥같은 13편의 시를 선별하여 그 깊은 메시지를 쉽고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뀨의 시들은 진하고 깊은 인간적 삶에서 우러나온 것들로, 라즈니쉬의 깊은 각성과 사랑의 빛으로 함께 어우러져 펄펄 살아 숨쉬는 대양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이뀨는 별난 선사?!

1394년, 고꼬마스(後小松) 천황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술과 고기, 여색을 즐기는 등 무애행(無碍行)을 실천하며 일체의 가식과 위선을 버리고 계율마저 넘어가고자 하였다. 깨달음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에 당시 타락하고 있던 일본의 선승들을 가차없이 질타하고 매도와 독설을 서슴지 않았다.

신국판 / 520면 / 값10,000원

법구경 上·下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전2권 / 각권 값6,500원

금강경

벼락처럼 자르는 지혜의 완성!
2천5백 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432면 / 값7,000원

탄트라비전 I II III IV

내 영혼이 눈 뜬 최초의 창문!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신국판 / 전4권

부처님의 유언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공파스님 역해
신국판 / 400면 / 값7,000원

판차탄트라

감로수와도 같은
다섯 토막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현명하게 바꾸어 준다!

판디트 비쉬누 샤르마 지음 / 서수인 옮김
신국판 / 440면 / 값7,000원

삶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 남전을 아십니까?

마조 MATZU 조주 JOSHU 임제 RIMZAI 남전 NANSEM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태일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대표전화927-2831 팩스924-3236

책장을 여는 순간, 명쾌하고 진한 감동이 메마르고 지친 당신의 영혼에 단비를 내려줄 것입니다.